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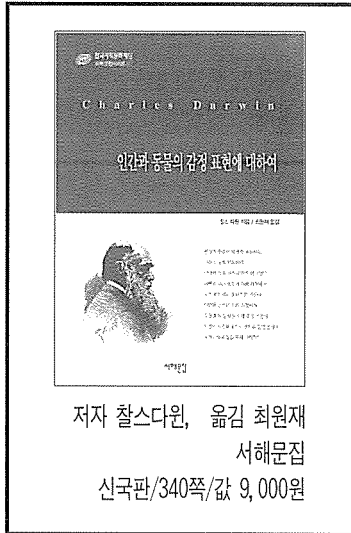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에 대하여

19세기 생물학연구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을 때 초판이 나오자마자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선풍적인 환영을 받았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였고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진화론에 의해 제시된 여러 현상들은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도태현상으로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주된 주제는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현대 생물학의 범주에서 보면 생태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생물학에 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인간과 동물의 행동중 감정표현에 초점을 맞춰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자신의 진화론을 근거로 설명하였으며 표현의 수단이 되는 근육의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윈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변한다. 인간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표현, 예컨대 고함을 치거나 무서울 때 소름이 돋는다든지 머리털이 쭈뼛쭈뼛 곤두서는 것 등은 모두 동물의 행동과 비슷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진화과정을 추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에 대하여」는 다윈의 이러한 주장들을 정리한 것으로 인간의 감정표현의 원리를 규명하는 동시에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의 유사성을 밝히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4장으로 꾸며진 이 책은 표현의 근본원리, 동물의 표현방식, 동물의 특별한 표현, 인간의 특수한 표현(고통



과 울음) 등 인간과 동물이 나타내는 표현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생활습관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객관적 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다.

다윈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얼굴근육을 움직여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정은 모두 진화돼 왔으며 앞으로 진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윈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인종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이며 특징적인 현상들을 부각

시킴으로써 논거의 확신성과 일반성을 부여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다윈은 생물의 각 종족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행동의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신체적인 유사성 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의 유사성은 각 종족을 단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행동양식의 지속성은 진화과정에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기관의 지속성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는 이 책의 서문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해 설명했고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다윈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로부터 정확한 결론을 유추해내었고 그 결론에 근거한 사실들로부터 이론을 검증해낸 연구방법을 칭찬하고 있다. 이 책은 다윈의 저서 중에서 비교적 노년기에 쓰여진 것이므로 그의 일생동안의 연구결과가 정리 요약되어 있으며 아울러 행동연구분야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후세의 생태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과학고전이 널리 소개되지 못한 시점에서 전공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혀지기를 권하는 바이다. ①7 朴澤奎(건국대 화학과 교수)